

예수는 만난 사람들: 거라사 귀신들린 청년

누가복음 8:26 - 39

거라사 청년을 찾아가시다

예수님은 거라사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무덤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걸치지 않고 있었고, 쇠고랑을 끌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셧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들의 숫자는 군대라 불릴 정도로 많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했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모두 호수에 달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해 거라사로 오셨고,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할 것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의 일상으로 돌아가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란 귀신으로 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낮게 된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살면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또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귀신에게서 놓이게 되었고, 잃었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상

흔히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이 청년에게 큰 힘을 주고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았던 것처럼, 우리도 재물에 마음을 너무 두어 평범한 일상의 것들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수천마리의 돼지들보다 한 청년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귀신들린 청년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감사함을 기억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